

# “소수정예 엘리트 대학으로”

**interview** 개교 10돌 맞은 진각종립 위덕대 한재숙 총장

진각종립 위덕대가 10월 18일 개교 10돌을 맞았다. 위덕대는 대한불교진각종 산하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지난 1996년 경북 경주에서 개교했다.

개교 당시 입학정원 400명으로 출발한 이 작은 대학은 현재 22개 학부, 31개 전공(야간 3개 전공포함), 5개 대학원에 3, 286명의 재학생과 219명의 교직원을 갖춘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위덕대는 2004년까지 신입생 총원율이 50% 선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는 85%로 늘어나 학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덕대 한재숙 총장

##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해 등록금 의존도 낮출 계획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2004년 3월 취임한 영남권 대학 유일의 여성총장인 제 3대 한재숙(59·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회장) 총장의 노고와 컸다.

한 총장은 취임 이래 지난 몇 년간 부진한 신입생 입학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자구 노력에 심혈을 쏟고 있다.

11월 6일 위덕대 총장실에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립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용하지만 힘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위덕대호’ 선장 한재숙 총장에게 위덕대의 비전을 들어봤다.

▲신입생 입학률이 떨어지고 재정자립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지방 사립대학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위덕대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총장직을 맡고보니 위덕대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대단히 건실한 대학이더군요. 하지만 재정 수입의 85%가 등록금으로 총당될 만큼 등록금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내 테니스장과 인더어 골프장, 볼링장 등을 만들어 외부 대어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또한 외식

산업학부 등도 크고작은 지역 행사에 참여시켜 수익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위덕대는 지방 대학이지만 올해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환경 개선도 부문 평가에서 201개 대학중 10위를 기록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위덕대는 교수화보율이나 교지화보율, 교수진의 캐리어와 자격요건 등에서 우수합니다.

특히 교수들이 대체적으로 젊다보니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또 각 전공마다

## 한국 고유 음식문화 콘텐츠 전세계 시장에 선보일터

정원이 적어 소수정예로 온 정성을 다해 엘리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큼니다. 그러다보니 취업률이 69.3%로 지방대학중 상위권에 속할 만큼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학과는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과는?

—지역에 적합하고 수요에 맞게 전공과를 몇 개 바꾸었습니다. 가까운 울진과 영덕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북 유일의 전기공학부를 만들었습니

다. 컴퓨터멀티미디어과를 분할해서 게임학과를 만들었으며, 외식산업부와 문화컨텐츠 등 지역의 타대학과는 차별하여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전공을 개설했고, 교육부문에 있어 내년에는 중등특수교육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장님이 취임해서 국제화 교육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7+1프로그램’과 ‘2+2프로그램’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입니까?

—2년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

## 5개국 14개 대학과 협정 해외대학서 공부 기회 제공

중국, 일본, 필리핀 등 5개국 14개 대학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이 교내대학에서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7+1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뉴욕공대(NYIT)와 미국 웨스트대, 일본 랫소 종립대, 필리핀 앙헬레스대, 중국 신양 체육대 등에서 56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0여명이 한 학기동안 공부를 마쳐 어학부와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2+2 프로그램’을 만들어 2년은 위덕대에서, 나머지 2년은 해외 교내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덕대 학과중에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 더 집중 육성시킬 것들이 있다면?

—경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이다 보니 관광경영학과와 관광영어학부, 사회체육학부, 외식산업학부 등 범관광계열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설로 관광개발이 활성화 될 동해권의 관광·문화 콘텐츠를 우리 대학 출신들이 담당하도록 집중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경주=김주일 기자



태고종은 11월 9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종도 자정결의 정진 대회’를 봉행했다.

## 태고종, “불미스런 일 참회” 종도 자정결의정진대회 열어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1월 9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종도 자정결의 정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법회는 최근 황룡사 사건과 선암사 사태 등 종단 안팎으로 크고 작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함에 따라 종단의 기강 확립과 종도 화합의 기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운산 스님은 “12월 중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위해 새로운 인사와 직제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3부원장(교육, 재무, 행정) 중심 체제의 팀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은 △그동안 불미스런 사태를 통해 종도들에게 걱정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머리숙여 참회하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수행종단의 풍토를 조성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확립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11월 10일 낙성법회를 봉행한 인천 천태종 황룡사 전경

## 천태종 황룡사 10일 낙성식 주말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인천에 위치한 천태종 황룡사(주지 무원 스님, 천태종 사부회장)가 5년여의 공사 끝에 11월 10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000년 남북통일과 인천불교의 중흥을 발원하며 첫 삼을 뜬 황룡사는 총공사비 90여억원을 들여 4700평의 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000평 규모로 세워졌다. 1층은 황적당과종무실, 2층은 설선당, 3층은 대법당 4층은 대불보전과 적묵당 등이 들어서 있다. 무원 스님은 ‘불자들이 외국인들을 위한 주말 템플스테이 행사와 각종 문화행사를 상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2006 군포교 함시다 조계종 군포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 서울 도심사찰 군포교 ‘왕성’

신병 생일 축원 · 노래 공연 등 정기 지원활동

서울 도심 대형 사찰들의 군포교 지원 활동이 왕성하다. 정기법회 지원은 물론 위문공연, 수계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군포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반야법회, 대승법회, 거사법회, 문수법회, 중부 지역 법회 등 산하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군법당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승법회는 매주 넷째주 일요일 1사단 신병교육대를 정기적으로 위문해 생일자 축원 및 대형 케이크를 선물하고 청년회 노래동아리인 ‘소리마루’의 공연도 함께 펼친다.

반야법회는 심원사를 찾는 불자 장병들에게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주고 있고 중부지역법회는 경전 해설 법회를 봉행해 불자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중에서는 자비의 단주와 봉축 위문품 전달, 좌복 보시, 논산 훈련사 연무사 수계법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도 지역 법회에서 직접 군법당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채납 하는 등 왕성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19일 불광사 신도들의 심시일만 모듬으로 1사단 15연대 2대대 법당 점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이고 1사단 내 세곳의 군법당 건립에 힘을 보탤다.

분당구법회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병실 위문을 통해 몸이 아픈 장병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고 경기도 파주 문산 지역 다수 군법당에 신도들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는 신도회와 지역법회 위주로 군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정기법회 지원이 주류지만 법회 지원을 하지 못하는 군법당은 법회 동참

인원에 따라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씩 현금 지원을 하고 있어 법당 운영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삼각산 도선사(주지 혜자)도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와 함께 현재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포교 게시판을 장병들이 병영 생활하는 휴게실, 화장실 등에 부착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군 제

17전투비행단 내부반 및 화장실 등에 부착된 포교게시판을 전액 지원했다.

조계종 군포교별포교구 일면 주지 스님은 “서울 도심 대형 사찰에서 군포교에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며 “군포교가 불교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식 기자

사찰	지원 단체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조계사	반야법회	심원사	매월 넷째주 정기법회
	대승법회	1사단 신병교육대	매월 넷째주 정기법회 생일축원 등
	거사법회	1공병여단 군법당	매월 둘째주 정기법회
	문수법회	7사단 연승사	년2-3회 정기 위문
불광사	중부지역법회	76사단 신남법당	경전법회
	분당구법회	국군수도통합병원 군법당	환자위문
	송파구법회	1사단 16연대 1대대	월 1회 정기법회 및 간식지원
	송파13구법회	1사단 16연대 2대대	월 20만원 지원, 분기별 위문
봉은사	동대문구법회	1사단 16연대 3대대	월 1회 정기법회 및 간식지원
	대원2구법회	6군단 6포병여단 3대대	월 30만원 지원, 법사 파견
	포교부	한행사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정기법회
	신도회	육군천부사, 육공사, 맹호부대, 911정부대, 칠성사, 연승사	행사시 지원, 매월 10만원 지원
도선사	강남을	보타사	행사시 지원, 매월 10만원
	17연등	홍주사	3개월에 20만원 지원
	34연등	수경사	행사시 지원, 매월 10만원
	30연등	회랑사	분기별 정기 위문
도선사	32연등	함로암	행사시 지원, 매월 10만원
		17전투비행단	풍경소리 게시판 설치, 지원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포교 활성화에 이끔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넓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포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포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교 허점량제 후원 서기모니불상(제포:彌)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포교를 살립니다

# 제1회 수용자 孝 편지 등 문학작품 공모

11월 1일 ~ 11월 30일

- 대상 1명 : 상금 30만원 및 부상
- 최우수상 1명 : 상금 20만원 및 부상
- 우수상 2명 : 상금 10만원 및 부상
- 작자 20명 : 상금 각 5만원

수용자들에게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신문사, BBS청주불교방송의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효 편지’ 등 문학작품을 공모하오니 많은 수용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 2006년 11월 1일 ~ 11월 30일 (11월30일 소인까지 유효)
- 작품내용 : 효 편지, 신앙(불교)수기, 수필 등 갱생의 의욕이 담긴 내용
- 발표 : 2006년 12월 15일 (금) 해당 교도(구지)소로 통보 (가작 이상의 작품은 기명을 사용하여 책으로 출판 예정, 제출된 작품은 반송 안됨)
- 보낼 곳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옥천 대성사 (우, 373-804), (043) 732-5560
- 기사사향 : 공정한 사항은 정주교도소 교육문화과 복지계장 (043) 296-8171, 내선 602번)
- 협찬 : 옥천현대자동차전문학원 (043) 733-3200

한국불교 태고종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Advertisement for the 1st '孝' (Filial Piety) Essay Competition, featuring a white dove and a cartoon character.